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이외선^{1*}, 김은재²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²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nsciousness of Bioethics in Nursing Students

Lee Oi Sun^{1*}, Kim Eun Jae²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B와 C시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사이의 관계를 간호전문직관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성향 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생명윤리의식, 간호대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 between consciousness of bioethicscritical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targeting 264 nursing students in two nursing colleges located in B and C city provinc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PC ver 23.0 programs.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sciousness of bio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nsciousness of bioethics. Theses results indicat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 est the program for improving not onl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ut also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ethics,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생명윤리의식은 생명공학과 의학적 기술에 의해 발생

된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1].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생명윤리문제로 인해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간호대상자가 최상의 만족을 얻을 수

*Corresponding Author : Oi -Sun Lee(leeosun@daum.net)

Received February 20,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March 26,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있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명 윤리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2].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직 역할 중의 하나이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법적·윤리적 책임 인식능력을 간호사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여[3] 윤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생명윤리의식은 건강과 관련된 맥락 및 생물학과 관련된 것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4]. 생명윤리의식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의 간호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윤리적 문제해결의 기반이 되어 현명하고 확고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요소이다[5]. 생명윤리의식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므로[6],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간호교육과정에서 꼭 달성해야 할 학습성과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윤리교육을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빈번하게 직면하게 되는 생명윤리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통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7]. 그러나 현재 간호교육현장에서 생명윤리 교육이나 생명윤리 교과목 배정 등은 미흡한 상태이며,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의 정도는 2.89점-3.03점(범위 1-4점)[8, 9]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간호현장에서 생명윤리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교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8], 전문직 자개념[8], 공감[9]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또는 태도[10]로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8]. 이는 생명윤리의식이 생명윤리에 대한 지식습득과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생명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함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으로서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이다[13].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생명윤리의식을 높이는 것은 간호가 전문직이라고 자부하는 높은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생명윤리의식이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13],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생명윤리의식의 확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질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생명윤리의식의 연구는 생명윤리의식과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가 대부분으로 생명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개변수에 대한 연구는 드문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향상에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관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생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4년제 간호과 1개교, C시 간호학과 1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적합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Lim과 Park의 연구[8]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의 상관관계가 .24인 것을 기반으로 효과크기를 .25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9로 설정하여 G-Power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을 때 164명으로 계산되었다[14]. 탈락률을 고려하여 275명에게 2017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264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유무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비판적 사고성향

Yoon[1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 하부영역으로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Yeun 등[15]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16]이 문항을 축소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 하부영역으로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Han 등[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3.4 생명윤리의식

Kwon[1]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9개 하부영역으로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의 총 49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간생명공학의 7문항을 제외한 총 4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제 변수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7]의 매개검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이 235명(89.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이 91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다가 180명(68.2%)이었다.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12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은 경험하지 않

은 군이 159명(60.2%)로 경험한 군보다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264)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9(11.0)
	Female	235(89.0)
Grade	1st ^a	72(27.3)
	2nd ^b	91(34.5)
	3rd ^c	56(21.2)
	4th ^d	45(17.0)
Religion	Yes	84(31.8)
	No	180(68.2)
Nursing satisfaction	Dissatisfied ^a	46(17.4)
	Neutral ^b	105(39.8)
	Satisfied ^c	112(42.4)
Clinical practice	Yes	105(39.8)
	No	159(60.2)

3.2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에 3.58점(±.40)이었고,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5점 만점에 3.73점(±.42)이었다. 생명윤리의식은 평균 5점 만점에 3.51점(±.31)이었다. 생명윤리 하부 영역 중 신생아 생명권이 3.91(±.58)점으로 가장 높고 태아의 생명권 3.83(±.61)점, 장기이식 3.54(±.71)점, 인공임신중절 3.49(±.48)점, 안락사 3.41(±.62)점, 태아진단 3.40(±.43), 인공수정 3.36(±.51)점 순이었으며 처사가 3.19(±.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Level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N=264)

Variables	Mean±S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8±.40
Nursing professionalism	3.73±.46
Consciousness of bioethics	3.51±.31
Right to life of fetus	3.83±.61
Artificial abortion	3.49±.48
Artificial insemination	3.36±.51
Prenatal diagnosis of fetus	3.40±.43
Right to life of newborn	3.91±.58
Euthanasia	3.41±.62
Organ transplantation	3.54±.71
Brain death	3.19±.3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남학생이(t=2.78, p=.006), 1학년이 2학년(F=3.56, p=.015)보다 간호학과 만족 군이 보통이다 군(F=7.81, p=.00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과 만족 군이 보통이다 군과 만족하지 않은 군(F=17.8, p<.00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명윤리의식은 간호학과 만족 군이 보통이다 군(F=3.47, p=.032) 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64)

Variable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ethics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3.77±.45	2.78	3.71±.45		3.54±.35	.60
	Female	3.55±.39	(.006)	3.73±.46	-.26(.789)	3.50±.30	(.547)
Grade	1st ^a	3.67±.43		3.75±.4		3.52±.33	
	2nd ^b	3.48±.41	3.56	3.74±.46	.24	3.47±.29	.68
	3rd ^c	3.56±.39	(.015)	3.73±.46	(.868)	3.54±.29	(.564)
	4th ^d	3.65±.34	a>b	3.68±.48		3.52±.32	
Religion	Yes	3.52±.39	-1.64	3.67±.47	-1.33	3.51±.31	.26
	No	3.60±.41	(.101)	3.76±.45	(.182)	3.50±.30	(.789)
Nursing satisfaction	Dissatisfied ^a	3.54±.43	7.81	3.54±.48	17.8	3.48±.34	3.47
	Neutral ^b	3.47±.37	(.001)	3.61±.44	(<.001)	3.46±.28	(.032)
	Satisfied ^c	3.68±.39	c>b	3.91±.41	c>a, b	3.56±.30	c>b
Clinical practice	Yes	3.60±.39	.73	3.70±.48	-.859	3.52±.31	.68
	No	3.56±.41	(.462)	3.75±.44	(.391)	3.50±.30	(.490)

3.4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3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생명윤리의식과 정(+)의 상관관계($r=.2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 생명윤리의식은 정(+)의 상관관계가($r=.4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생명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Table 4. Correlations of among Variables (N=264)

Variables	CTD	NS	ABE
	r(ρ)	r(ρ)	r(ρ)
CTD	1		
NS	.35 ($\rho<.001$)	1	
COB	.25 ($\rho<.001$)	.43 ($\rho<.001$)	1

CTD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S = Nursing professionalism, COB=Consciousness of bioethics

3.5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7]의 3단계 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Table 5 참고).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5, p<.001$), 2단계로 독립변

수인 비판적 사고성향이 종속변수인 생명윤리의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5, p<.001$).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비판적 사고성향과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을 동시에 종속변수인 생명윤리의식에 회귀한 결과, 독립변수인 비판적 사고성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9, p=.001$). 이때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 감소하여 매개변수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의 영향력은 유의하지만($\beta=.39, p<.001$), 독립변수인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beta=.11, p=.059$)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는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Z 점수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18], 본 연구에서는 Z 값이 5.00($p<.001$)으로 유의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은 3.51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ng과 lee의 연구[19] 2.81점[범위 1-4], 간호학과 1학년,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Gu와 lee[20]의 연구 3.56점(범위 1-5점)과 유사하고, 1학년과

Table 5.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N=264)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AdjR ²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fessionalism	.40	.06	.35	6.22	$\rho<.001$.125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19	.04	.25	4.26	$\rho<.001$.061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08	.04	.11	1.89	.059	.196
	Nursing Professionalism		.26	.04	.39	6.69	.001	

Sobel test Z=5.00($\rho<.00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i[21] 2.69점[범위 1-4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신생아 생명권, 태아생명권이 높고 뇌사가 가장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20]결과와 유사하다. 뇌사와 관련된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윤리의식의 차이는 간호학과 만족 군이 보통이다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1학년과 4학년이 높고, 2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u와 lee[20]연구에서 1학년이 생명윤리의식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1학년 때 간호학개론 교과목에서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Chong과 lee[19]의 연구에서는 4학년이 3학년보다 생명윤리의식 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향후 학년별로 표본수를 동일하게 하고 표본수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2학년이 생명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상실습 전인 2학년 학생들의 낮은 수준의 생명윤리의식은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갔을 때 임상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회의감과 윤리적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21] 임상실습 전인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 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경험 유무도 생명윤리 의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u와 lee[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1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과 Jaung[22]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4학년이 1학년보다 생명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간호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에서 생명의료윤리교육프로그램 적용 시 생명의료윤리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생명윤리의식 교육 시 임상현장의 윤리사례를 통해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규칙에 대한 적용 연습을 할 수 있도록[5]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임상실습 시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학과 만족군이 생명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20]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 23]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생명윤리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비판적 사고 성향이 생명윤리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8]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7]에서 생명윤리의식교육 프로그램이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제해결과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게 하여 윤리적 상황에서 의사결정력을 향상 시킨 결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윤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비판적 사고를 통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기반 실무 교육, 문제중심 학습 등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생명윤리의식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Gu와 lee[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13]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생명윤리의식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형성되면 간호현장에서 제기되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잘 극복하기 때문[13]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생명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간호전문직관에 의해 설명 가능한 만큼 간호전문직관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뜻하며, 간호전문직관을 증가시키면 비판적 사고성향에 의한 생명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을 뜻한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에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확립은 윤리적 딜레마 수준을 낮추고, 예비 간호사의 정체성 확립의 바탕이 되며 과학발달과 생명의료기술의 변화로 간호현장에서 제기되는 생명 윤리적 문제를 포함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잘 극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13].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사로서의 정체감과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생명윤리의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2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태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생명윤리의식 간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완전 매개하는 것 ($Z=5.00, p<.001$)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후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의 향상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J. Kwon. (2003).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2] K. J. Lee, E. Lee & Y. S. Park. (2016). Comparison on Influencing Fa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77-388.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1.205>
-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education of korea 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 [4] S. Gorovitz. (1977). Bio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Monist*, 60(1), 3-15. DOI: <http://dx.doi.org/10.5840/monist197760128>
- [5] M. S. Yoo & K. C. Shon.(2012).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2(2), 61-76.
- [6] J. Y. Ha, D. H. Kim & S. K. Hwang. (2009).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216-224.
- [7] G. S. Jeong. (2016). The Effect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Freshma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376-38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3.376>
- [8] M. H. Lim & C. S. Park. (2014).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7), 4423-443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423>
- [9] J. H. We, B. H. Chang & M. H. Lim. (2017). The Relationship of the Empathy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ith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 association*, 17(4), 500-50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4.500>
- [10]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11] Y. S. Lee. (2011). *An analysis of the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delphi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12] M. Y. Moon, M. K. Jeon & A. W. Jeong. (2013). Relationship between nurs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4(1), 27-47.
- [13] E. J. Seo & N. H. Cha. (2016).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349-358.
- [14]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DOI: <http://dx.doi.org/10.3758/brm.41.4.1149>
- [15]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16] S. S. Han, M. H. Kim & E. K. Yung.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 [17]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18] K. J. Preache & A. F. Hayes.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19] Y. R. Chong Y. H. Lee. (2017). Affecting Factors of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4), 389-397.

- [20] H. J. Gu & O. S. Lee. (2015).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356-7366.
DOI: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7356
- [21] Y. H. Cho. (2017).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59-369.
- [22] M. Y. Moon & A. H. Jaung. (2012).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practice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3(2), 49-62.
- [23] E. A. Kim, H. Y. Park & S. E. Choi. (2014).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7(2), 144-158.

이 외 선(Lee, Oi Sun)

[정회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성지능, 간호교육, 성인간호
- E-Mail : leeosun@daum.net

김 은 재(Kim, Eun Jae)

[정회원]



- 2011년 2월 :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노인복지관리학 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매노인, 기본간호학
- E-Mail : kkhyang@hanmail.net